

감성 코퍼스(Sentiment Corpus)를 활용한 『Interpreter of Maladies』 번역문의 픽션적 전환(Fictional turn) 연구*

- 커뮤니티 통역사의 표상을 중심으로 -

지윤주**

Yunju Jee (2022), A study on *Interpreter of Maladies* based on the fictional turn using a sentiment corpus. *The concept of the fictional turn that was put forward in the 1990s is one of the many turns in translation studies and has inspired robust research in languages and cultures. Based on the fictional tur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munity interpreter as a protagonist in Interpreter of Maladies (1999) and two transl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sentim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to show how fictional depictions of the community interpreter are portrayed. Sentiment analysis is used for identifying sentiments embedded in text data. This paper conducted a sentiment analysis concerning the degrees of neutral, negative, and positive sentiments implied in the usage of the lexicon in each text. Findings show that sentiment scores between ST and TT demonstrate considerable varia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T1 and TT2 also reveals that the fictional interpreter is not detached from socio-cultural contexts. Based on these outcomes, this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sentim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in translatio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Fictional turn, Sentiment Corpus, Jhumpa Lahiri, Community interpreter, Sentiment analysis

주제어: 픽션적 전환, 감성 코퍼스, 줘파 라히리, 커뮤니티 통역사, 감성분석

* 본 연구는 2020년 1학기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외 번역사 수업을 통해 발전한 것입니다. 값진 조언을 주신 최은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 수료생.

1. 서론

1990년대 번역학의 중요 연구 기조 중 하나였던 픽션적 전환은 소설 속 통번역 담론을 통해 번역학적 이론을 사유하고 그 사회적 함의를 논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Kaindl 2014: 11). 특히 소설 속 통번역사의 표상에 대한 메타픽션적 논의의 가능성은 현대 사회의 언어와 문화 이동 현상을 학문적 영역에서 탐색하는 것에 유용하다(Delabastita and Grutman 2005: 26). 다만 그간의 픽션적 전환 연구는 대개 하나의 담론, 다시 말해 원문만을 이용해 통번역의 현상을 탐색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픽션적 전환의 관점에서 소설 『Interpreter Of Maladies』(1999)과 그의 번역문 2종에서 재현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양상을 비교하고 이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원문뿐 아니라 번역문을 대상으로 하는 픽션적 전환 관점의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문에서 재현된 통번역사의 표상이 목표 문화의 맥락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번역 문학 텍스트에서 픽션적 전환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번역 연구 방법의 확장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이 본 연구의 중심인 만큼, 본 연구는 분석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감성 코퍼스(Sentiment Corpus)를 활용한 입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감성 코퍼스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은 일종의 감성 분석으로, 여기서 감성 분석이란 텍스트에 주입된 의견이나 평가, 태도, 감정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Bing et al. 2005),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현을 구분하고, 그 정도를 판별하는 분석 방법이다(신효필 외 2명 2016: 93). 이러한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감성이 어떠한지 연구자의 주관에 배제된 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최창식과 임영호 2021 : 38). 따라서 감성 코퍼스를 활용하는 본 연구는, 번역학 연구에서 부족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시도하여 분석 결과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담론이 제시된 원문(이하 ST)과 그의 번역본 2종(이하 TT1, TT2)을 픽션적 전환의 관점을 통해 정성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정성적 분석은 소설 속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 및 표상에서 드러나는 긍정, 부정 혹은 중립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후 정성적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감성 코퍼스를 기반으로 각 분석 텍스트의 감성지수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총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는 그간 번역학 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원문을 포함한 복수의 번역본의 픽션적 전환을 적용한 연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니며 감성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픽션적 전환(Fictional turn)

픽션적 전환 연구는 소설에서 묘사된 통번역사의 표상이나 이론을 주제로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픽션을 통해 통번역사에 대한 실제 사회의 이면을 고찰했던 것에 의의가 있다(Kaindl 2014). 대표적인 픽션적 전환 연구는 통번역사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비판점과 모순을 논의한 바델레벤(Bardleben 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세계시민주의로 비롯된 문화 이동의 갈등이 소설 속 통번역사의 삶으로 은유된 것을 분석하였고 이같은 픽션적 전환 연구는 탈식민주의부터 세계화 시대를 논하는 것까지 확장되었다. 2000년대 픽션 속 통번역사의 표상 연구는 현대 사회의 문화와 언어의 이동을 통번역사의 삶을 통해 통찰하는 연구가 있다(Bardleben 2007; Delabastita and Grutman 2005).

픽션적 전환을 이용한 국내 연구는 김영신(2017; 2018a; 2018b)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영신(2018a)은 한인 이민자 2세대 커뮤니티 통역사의 표상을 그린 소설 『The Interpreter』(2005)를 픽션적 전환의 기반으로 탐색했다. 이 연구는 소설 속 커뮤니티 통역사의 재현을 통해 이민자 2세대가 느끼는 정체성의 갈등과 한국어와 영어 간 위계를 분석한다. 특히 재미 교포 2세대 통역사의 문화적 갈등을 분석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통역사의 픽션적 전환 연구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국내 해방기 시절 통번역사에 대한 연구를 픽션적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본 김영신(2018b)은 당시 통역이란 정치적 행위와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기에 해방기 한국 소설의 통번역사가 부정적으로 표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외의 픽션적 전환 연구에 대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의 해방기 배경과 재외 동포 통역사라는 맥락에서 고찰하였던 점에 국내 픽션적 전환의 구체적인 성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역문을 통한 픽션적 전환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픽션적 전환의 이론적 확장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2.2. 감성코퍼스(Sentiment Corpus) 및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감성분석은 2000년대 이후 소셜 미디어의 급격한 확산 하에 온라인 텍스트의 긍·부정성 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ing 2012). 감성분석과 관련된 연구 중 특히 어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텍스트 내 감성 어휘를 긍정, 부정 및 중립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빈도를 연산하는 방식을 기초로 한다(신효필 외 2명 2016: 94). 이런 텍스트의 감성을 수치화하는 연구 방법은 텍스트에서 사회 현상을 읽고 이를 컴퓨터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남길임과 조은경 2017).

일반적으로 감성분석은 사전(lexicon)기반과 기계학습(machine-learning) 기반으로 나뉜다). 사전에 기반한 감성분석은 적절한 텍스트 데이터 내 문장이나 어휘에서 비롯된 극성(polarity)을 크게 긍정, 부정, 중립의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주석하여 감성 코퍼스를 구축한 일종의 감성 사전을 토대로 분석이 진행된다.

영어권 감성 사전의 경우 어휘 구축의 정량이 크게 발전되어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특히 집단지성 방법으로 제작된 허투와 길버트(Hutto and Gilbert 2014)의 VADER(Valence Aware Dictionary for Sentiment Reasoning) 감성사전은 감성 어휘 구축을 위해 10명의 평가자와 2명의 전문가가 감성 점수를 부여하여 제작되었으며 이 사전을 통한 실험은 특히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F1 점수 0.96을 획득할 만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한국어 감성사전²⁾ 연구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KOSAC(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과 군산대학교에서 제작한 KNU 사전이 있다. KOSAC의 경우 세종구문 코퍼스에서 선별한 문장을 주석 대상으로 총 7,744개 문장에 17,582개의 감정표현을 주석하여 구축한 코퍼스이다(김문형 외 3명 2013). KOSAC은 특히 문장보다 작은 단위의 핵심 주관 표현의 어근(SEED) 표현까지

1) 본 연구는 사전기반 감성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는 사전기반 감성분석 영역만을 논하였다.

2) 감성 사전은 대량의 감성 코퍼스가 구축되어 이를 사전으로 참조할 만큼의 정량화 된 코퍼스로(김문형 외 3명 2013) 감성 사전은 곧 감성 코퍼스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가리킨다.

감정의 특성을 도출하여 어근의 형태소를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으로 추출하여 감정 어휘 목록을 구축한 점에서 감성값 분석의 정밀함을 갖춘다(신효필 외 2명 2016: 99). KNU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구성하는 품사의 모든 의미를 Bi-LSTM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하고 난 후 인간(평가자)의 검수를 거친 사전이다(박상민 외 4명 2018). 두 사전 모두 온라인에 공개되어 접근성은 좋지만, 현재 감성 사전 구축 방법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한국어 감성사전은 위의 사전이 전부이다.

감성분석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연구는 대개 문학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을 분류하는데 감성분석을 활용한 하거나(Nalissnick and Baird 2013a), 셰익스피어 작품의 인물 간 관계의 밀접도에 대한 연구(Stiller et al. 2003) 등이 있다. 문학작품의 감성분석에 대한 국내 연구 역시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존재한다. 가령, 홍유림(2020)은 셰익스피어 『Othello』의 등장인물 대사를 감정 어휘사전 패키지를 이용해 텍스트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분류했다. 이를 통해 그는 실제 희극의 비극성 변화가 감성 분석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감성 분석이 문학작품 분석에 유효성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셰익스피어 희극에 등장한 인물의 대화 코퍼스를 감성분석하여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감정변화를 추적한 연구(장세은 외 6명 2019) 등이 있다. 하지만 번역본과 원문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감성분석은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3.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소개

3.1. 원문 및 번역문 소개

쥬파 라히리(Jhumpa Lahiri)는 탈식민주의, 세계화 담론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통해 다수의 문학상 등을 수상한 이력을 지닌 작가로, 특히 언어와 문화 사이의 이동을 주제로 사회의 이면을 말하는 것에서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는다(Kaur 2004). 『Interpreter Of Maladies』(1999: 48-76)는 단편집 『Interpreter Of Maladies』(1999)와 동명의 단편소설로 인도계 커뮤니티 통역사에게 일어난 해프닝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 속 통역사는 커뮤니티에서 필수적인 의료, 관광 등에 필수 인력임에도 사회적인 위치가 낮게 인식되는데 이것은 실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통

감성 코퍼스(Sentiment Corpus)를 활용한 『Interpreter of Maladies』 번역문의 픽션적 전환(Fictional turn) 연구 147

찰한 것에 의미가 깊다(Hutton 2020: 10).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원문은 커뮤니티 통역사를 픽션적 전환의 관점으로 분석하기 적합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번역본은 출판 시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TT1의 경우 원문이 출시된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 출시되었으며 TT2는 이후 2013년에 출간된 번역본이다. TT1이 출간될 무렵 한국에서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 용어조차 확립되지 않았을 만큼 생소한 것이었다(곽중철 2010: 8). TT2는 옮긴이의 말³⁾과 작가의 우수함과 작품의 문학성에 대한 찬사를 기록한 자료를 첨가하여 작품의 문학성 상세히 설명한다. 이는 각 번역본이 출판될 당시의 작가와 작품의 문학적 명성과 가치가 다르다는 맥락과 각 번역본이 출간할 당시 사회적 배경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기와 공간의 차이를 가진 번역본의 분석은 픽션적 전환의 관점에서 각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이해와 인식을 내밀하게 탐색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3.2. 데이터 분석 방법

텍스트 내 감성분석을 위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과 번역문에 재현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표상을 픽션적 전환의 관점으로 정성 분석을 한다. 둘째, 위의 결과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보이는 언어자원을 추출하고 이를 감성 코퍼스를 통해 분석하여 감성지수를 도출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와 한국어의 감성분석은 그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본 장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 각 텍스트의 감성분석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ST는 구글 코랩(Colab)⁴⁾을 기반하는 VADER를 사용해 감성지수를 도출하였다. 한국어(TT1과 TT2) 감성분석은 KOSAC으로 진행하였고 감성 코퍼스에 부재한 어휘는 KNU로 보충하였다. 각 언어의 감성코퍼스 선정 기준은 감성 사전의 구축 기반과 제작 과정이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하였기에 VADER와 KOSAC은 모두 통사적, 언어적 규칙을 활용하고 난 뒤 감성어휘를 구축한 후 인간 언어 전문가의 교정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점이 같기에 분석 도구로 활용하기 적합하였다.

3) TT2의 번역자는 해당 작품에 대해 “이 책은 스물아홉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었으며, ‘최고의 단편’ ‘현대 단편의 희망’이라는 최상급 평가를 받았다(2013: 310-311).”고 인용하며 원문의 가치를 강조한다.

4) 코랩은 웹 브라우저에서 텍스트와 프로그램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썬(Python) 프로그램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 감성어휘에 대한 수치가 긍정, 부정, 중립으로 제시되는 점 또한 각 텍스트의 감성지수를 비교하기에 적절했다.

```
[ ] import nltk
nltk.download('vader_lexicon')
from nltk.sentiment.vader import SentimentIntensityAnalyzer
sentiment = SentimentIntensityAnalyzer()
sentiment.polarity_scores("our text")
print(sentiment.polarity_scores("you could help me feel better"))

[nltk_data] Downloading package vader_lexicon to /root/nltk_data...
{'neg': 0.0, 'neu': 0.417, 'pos': 0.583, 'compound': 0.6808}
```

그림 1. VADER를 활용한 사례 9의 ST 감성분석

VADER를 활용한 ST의 감성지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랩에서 파이썬을 실행한 후 자연어 처리 도구 패키지인 NLTK를 설치한다. 이후 NLTK에 내장된 VADER 사전을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문장의 부정(neg), 중립(neu), 긍정(pos) 그리고 총 감성지수(compound) 값이 제시된다⁵⁾. VADER는 파이썬의 NLTK 라이브러리를 통해 간편하게 감성분석 값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한국어 감성분석은 영어와는 달리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영어는 굴절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로 품사를 나눌 수 있지만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로 품사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절로 구분하고 어미의 변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는 감성분석을 위해 먼저 형태소 분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난 후 감성분석을 진행해야 결과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from konlpy.tag import Komoran
komoran = Komoran()
print(komoran.morphs(u'나름의 사소한'))
print(komoran.pos(u'나름의 사소한'))

['나름', '의', '사소', '하', 'ㄴ']
[['나름', 'NNB'), ('의', 'JKG'), ('사소', 'XR'), ('하', 'XSA'), ('ㄴ', 'ETM')]
```

그림 2. 사례 7 TT2의 형태소 분석 과정

5) 본 연구는 분석 어휘의 감성값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문장의 총 감성지수(compound) 값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파이썬에 구현된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Konlpy를 다운로드 한 후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코모란(Komorán)을 통해 한국어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3의 ‘나름/NNB’처럼 형태소 분석에 제시된 품사의 형식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감성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KOSAC의 코퍼스를 찾아 감성값을 확인했다.

1	ngram	freq	COMP	NEG	NEUT	None	POS	max.value	max.prop
3031	나름/NNB	3	0	0	0	0	1	POS	1

그림 3. KOSAC 감성사전에 구축된 코퍼스의 사례⁶⁾

해당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 KNU 사전을 활용하였다. 그림 4처럼 KNU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검색하려는 어근을 입력하면 그의 사례를 구문 별로 제시하고 감성 수치를 제시한다.

단어 : 올바르게
 어근 : 올바르
 감성 : 2

그림 4. KOSAC 감성사전에 구축된 코퍼스의 사례

KNU의 감성값은 KOSAC과 마찬가지로 5단계로 분류(-2, -1, 0, 1, 2)되어 있기 때문에 KOSAC에 부족한 단어를 참고하기에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두 사전을 조합하여 감성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각 감성사전의 수치를 조합하는 기준

감성사전	NEGATIVE		NEUTRAL	POSITIVE		NONE
KOSAC	1	0.5(이상)	0	0.5(이상)	1	0.5
KNU	-2	-1	0	1	2	N/A

두 개의 사전에도 부재한 어휘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해당 어휘의 예시문을 기반으로 감성 수치를 결정하였다. 비록 이의 경우는 분석과 감성 지수

6) 엔그램 단위로 분석된 KOSAC 감성사전은 어근의 품사 분류를 정의하고 머리말 행에 각 수치에 대한 정의가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freq는 빈도, COMP는 복합접수, NEG는 부정, NEUT은 중립, None은 의미값이 없는 경우, POS는 긍정이고 max.Value는 총 수치에 대한 감정 분류, max.Prop는 감정수치를 제시한다. 감성수치는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의 범위로 환산된다.

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제1 언어가 한국어인 만큼 사전을 기반으로 공기어(co-occurrence)에 대한 긍정, 부정의 값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의 상황에 해당하는 어휘가 한 개였던 만큼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감성 코퍼스 및 감성 분석 기법은 연구자의 정성적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컴퓨터 언어 융합적 시도이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의 일종인 딥러닝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달리, 번역학적 텍스트 사례 분석이라는 목적 아래 감성 코퍼스의 언어 자료에 기반을 둔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리고 분석 텍스트의 규모 차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감성 코퍼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감성 사전이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감성 범주가 할당된 말뭉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남길임과 조은경 2017:13) 사례 분석의 객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4. 텍스트의 정성적 분석 및 감성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소설 속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를 주인공 관점의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 커뮤니티 내 타인의 관점, 그리고 의뢰인의 관점에서 표상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위치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감성분석의 경우 각 관점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문장 내 언어자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4.1. 주인공 관점의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인식

본 사례는 소설 속 커뮤니티 통역사인 카파시(Mr. Kapasi)가 관광 통역 의뢰를 받고 의뢰인 부부와 함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주인공은 종종 통역사로서의 직업적 정체성 및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는 부분을 드러내는데 그 예시문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ST7]

Mr. Kapasi had never thought of his job in such complimentary terms(p. 51).

7) 모든 사례의 밑줄은 필자의 강조이다.

통역 의뢰인은 질병 통역사에 대한 긍정적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주인공은 통역사(his job)로서 자부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례 1은 이런 주인공의 마음을 긍정어(complimentary)+부정어(never thought of)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자부심이 없지만, 완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호하고 애매한 커뮤니티 통역사의 위치를 재현한다. 이에 대한 감성분석의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

import nltk
nltk.download('vader_lexicon')
from nltk.sentiment.vader import SentimentIntensityAnalyzer
sentiment = SentimentIntensityAnalyzer()
sentiment.polarity_scores("our text")
print(sentiment.polarity_scores("had never thought of his job in such complimentary terms"))

```

[nltk_data] Downloading package vader_lexicon to /root/nltk_data...
{'neg': 0.0, 'neu': 0.756, 'pos': 0.244, 'compound': 0.4404}

그림 5. ST의 VADER 감성분석 결과

그림 5의 결과를 보면 텍스트의 감성은 일부 긍정성(positive: 0.244)과 함께 중립성(neutral: 0.756)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앞선 분석과 같이 해당 사례 문장의 감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래와 같이 번역본은 이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사례 1의 TT]

[TT1] 카파시 씨는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p. 95).

[TT2] 카파시 씨는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멋진 말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p. 90).

두 개의 번역본 역시 긍정어(좋은 쪽, 멋진 말)에 부정어(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첨가된 표현이지만 감성분석의 결과는 원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2. 사례 1 번역문의 감성분석 결과 통역과 번역의 내적 의미⁸⁾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 1	좋/VA;은/ETM	Positive	1	POS: 1
	쪽/NNB;으로/JKB	Negative	1	NEG: 1
TT 2	멋진 → KNU 사전 인용	Positive	1	POS: 1
	말/NNG;로/JKB	Negative	1	NEG: 1

8) 형태소 중 ‘~쪽으로’나 ‘~말로’가 부정성을 보이는 것은 감성 코퍼스 KOSAC의 기반 데이터(세종 구문 코퍼스)에서 종합한 결과이다. 즉 세종구문 코퍼스를 한정으로, ‘~쪽/NNB;으로/JKB’는 의존 명사(NNB)에 부사격조사(JKB)가 붙은 구문들의 경우 부정적 맥락의 문장인 경우가 높게 집계되었

표 2처럼 사례 1의 형태소 분석 단계는 원문의 긍정 어휘와 등가를 이루는 ‘좋은 쪽으로’, ‘멋진 말로’만을 계산하였음에도) 긍정성과 함께 부정성이 검출되었다. 즉 번역본의 긍정형 등가어만을 분석했음에도 부정적 감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번역문에 표상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인식이 원문과 다르게 부정적 함의가 두드러져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사례 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 ST]

To him it was a thankless occupation(p. 51).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설 속 통역사는 자신의 직업을 긍정어(thank)+부정어(less)로 표현한다. ST에서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란 어느 한쪽 극성에 치우치지 않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다. 감성분석 역시 완전한 중립성(neutral: 1.0)으로 계산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원문에서 표상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인식은 긍정과 부정의 경계에 있었다.

[사례 2 TT]

[TT1] 그가 볼 때 그건 별볼일 없는 일이었다(p. 95)

[TT2] 자기 생각에는 보람 없는 일이었다(p. 90)

반면 TT1의 “별볼일 없다”는 원문과 달리 부정성이 명시된 표현이지만 TT2는 긍정어(보람)에 부정어(없는)를 붙인 형태를 이다. 즉 TT1은 커뮤니티 통역사를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한편, TT2는 원문과 같이 긍·부정성이 모호하게 표상되어 있다. 이의 감성분석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례 2 번역문의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별/MM	Negative	1	NEG: 2
	볼일 없는 일 → KNU 인용	Negative	1	
TT2	보람/NNG	Positive	1	POS: 1
	없/VA;는/ETM;일/NNG	None	1	NONE: 1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 번역 텍스트는 ST에 상응하는 부분 중 번역서 간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밑줄로 강조하였으며, 원문의 ‘never thought of’는 번역본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감성분석은 ‘complimentary terms’의 등가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감성분석의 결과는 전술한 정성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TT1은 부정성이 두드러진 양상이지만 TT2의 경우 ‘보람’의 긍정성과 ‘없는 일’이라는 부정성이 None으로 계산되어 긍정적 함의가 우세한 수치로 계산되었다.

[사례 3 ST]

He found nothing noble in interpreting people's maladies.(p. 51)

사례 3의 원문 역시 부정어(nothing)에 긍정어(noble)를 수식하여, 어느 한쪽 극성에 치우치지 않은 태도를 드러낸다. 감성분석 역시 부정성 0.713, 중립성 0.287의 결과를 보이며 중립적 태도와 함께 부정성이 강화된 수치를 보였다.

[사례 3 TT]

[TT1] 그는 사람들의 질병을 통역하는 일이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p. 96).

[TT2] 사람들의 질병을 통역하는 일에서 고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p. 91).

번역본은 모두 원문의 ‘noble’에 등가어로 ‘고상’이라는 직관적 긍정어를 사용했지만 각 서술어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TT1은 애초에 통역이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직언으로 표현했지만, TT2는 ‘고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립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감성 코퍼스를 통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4. 사례 3의 번역문 감성분석 결과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고상/XR → KNU 감성분석	Positive	0.5	POS: 0.5
	지/EC;않/VX	Negative	0.5	
	았/EP;다/EC	Negative	1	NEG: 1.5
TT2	고상/XR → KNU 감성분석	Positive	0.5	POS: 2
	하/XSA;ㄴ/ETM	Positive	0.5	
	점/NNG;을/JKO	Neutral	1	
	발견/NNG	Positive	1	NEG: 1.5
	하/XSV;지/EC;못하/VX	Negative	0.5	Neu: 1
	았EP;다EC	Negative	1	

표 4에서 보듯이 각 번역본의 서술어는 긍정성 수치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두 번역본은 모두 부정성 1.5의 수치를 보이지만 긍정성은 TT2가 TT1보다 높

게 검출되었다. 유효적인 부분은 TT2의 수치에 중립성 지수가 도출된 점이다. 긍정성과 부정성 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중립성 지수도 검출된다는 것은 TT2가 TT1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의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례 4-5 ST]

Mr. Kapasi knew it was not a remarkable talent(사례 4). ... Still, it came in handy for the tours(사례 5)(p. 52)

주인공은 커뮤니티 통역사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자신의 언어 능력을 특별하지 않다고(not a remarkable talent) 생각하며 관광 통역 가이드로서 활동하기에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handy’ 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커뮤니티 통역의 일부인 관광 통역 분야는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이중언어 구사자에 의해 수행되어 온 경우가 보편적인데(이승재 2010) 원문은 이와 같은 현실을 픽션적 전환으로 소설에 도입하여 주인공 카파시가 커뮤니티 통역사로 활동하는 데에 전문적인 언어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 사례의 감성 수치는 부정성 0.567, 중립성 0.432로 부정성과 중립의 함의가 비슷하게 제시된 결과를 보이며, 사례 5는 중립성 1로 검출되었다.

[사례 4-5 TT]

[TT1] 카파시 씨는 그게 신통한 재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그렇기는 하지만 관광 안내를 할 때에는 이주 편리했다(p. 97).

[TT2] 카파시 씨는 그게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영어는 관광 안내에 유용했다(p. 91).

사례 4의 경우 각 번역문 간 긍정성의 차이를 보인다. 이중언어 능력에 대하여 TT1은 ‘재주’라 말하는데 이는 좀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말하는 TT2의 ‘재능’보다 가벼운 표현이다. 또한 TT1은 수식어 ‘신통한’을 사용하여 통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벼운 여타의 기술로 표현한다. 반면 TT2의 ‘뛰어난 재능’은 언어 능력의 자질을 가리키는데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여 TT1보다 긍정적인 함의가 강화되었다. 사례 5의 경우도 TT1은 자신의 부차적 ‘재주’가 가리키는 가벼움을 수용하는 ‘편리함’으로 표현하여 주인공의 직업적 수행 능력이 낮게 드러낸다. 하지만 TT2는 ‘handy’에 대한 등가적 충위를 보이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TT1의 부정적 태도와 대조된다.

표 5. 사례 4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신통/NNG → KNU 인용	Positive	0.5	POS: 0.5 NEG: 0.5
	재주/NNG	Negative	0.5	
TT2	뛰어나/VA; ㄴ/ETM	Positive	1	POS: 1.5
	재능 → KNU 인용	Positive	0.5	

표 6. 사례 5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아주/MAG	Positive	0.5	POS: 1.5
	편리/NNG;하/XSA	Positive	1	
TT2	유용/XR → KNU 인용	Positive	1	POS: 1

감성 수치는 전술한 텍스트의 정성적 고찰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TT1은 TT2보다 부정성이 높게 검출되었고 TT2는 긍정성이 높다. 이는 원문에서 중립에 가까운 표현이 번역본에는 한쪽 감성으로 초점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례 5의 감성분석은 앞선 분석과는 달리 TT1의 긍정성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표 6에서 보듯이 TT1의 긍정어를 강조하는 부사 ‘아주’가 긍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4.2.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커뮤니티 내부의 인식

4.2.는 커뮤니티 통역사가 속한 사회 내 인식을 탐색하는 부분으로 타인의 관점에서 표상되는 커뮤니티 통역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사례 6은 카파시의 아내를 통해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러낸다.

[사례 6 ST]

Mr. Kapasi knew that his wife had little regard for his career as an interpreter(p. 53).

카파시의 아내는 남편의 직업인 질병 통역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little regard’는 전술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의 단어를 조합하여 명확한 긍/부정의 태도를 단언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감성 분석 결과 역시 완전한 중립성(neutral: 1)의 수치를 보인다. 이처럼 카파시 아내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통

역사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사회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6 TT]

[TT1] 카피시 씨는 아내가 통역사 노릇을 신통찮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p. 97).

[TT2] 카피시 씨는 아내가 통역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p. 92).

TT1의 ‘신통찮게’는 부정적 맥락에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TT2는 긍정어(존중)에 부정어(하지 않는다)를 첨가하여 원문과 같이 긍정+부정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처럼 사례 6의 감성지수는 TT2의 긍정성이 더 높게 검출되었다.

표 7. 사례 6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신통/NNG;하/XSA;지/EC → KNU인용	Negative	0.5	Pos: 0.5
	여기/VV	Positive	0.5	Neg: 0.5
TT2	존중/NNG	Positive	1	Pos: 1
	하/XSV;지/EC;않/VX	Negative	0.5	Neg: 0.5

[사례 7 ST]

...she resented the other lives he helped, in his own small way, to save(p. 53).

카피시의 아내는 질병 통역을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일(own small way)로 치부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완전한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통역 일을 완전히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감성지수 또한 완전한 중립성(1.0)을 보이는 결과값을 보이며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사례 7 TT]

[TT1] 남들의 생명을 구제하는 데 하찮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아내는 마뜩찮아 했다(p. 97).

[TT2] 남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가 나름의 사소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분하게 여겼다(p. 92).

번역본의 경우 TT1의 ‘도움’과 TT2의 ‘방식’이라는 언어자원이 특정한 감성을 내포하고 있기보다는 지칭어로 분류되며 감성 코퍼스에 모두 부재한 어휘이기 때

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도움’과 ‘방식’을 수식하는 감정형 언어 자원인 ‘하찮은’과 ‘나름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TT1의 ‘하찮은’은 명확한 부정어로 볼 수 있지만 TT2의 ‘사소한’은 완전히 부정형 어휘로 분류되기 어렵다. 이는 수식 대상에 따라 혹은 맥락에 따라 그 부정성이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TT2의 경우 ‘사소한’을 수식하는 ‘나름의’라는 관형어를 사용한 의존명사를 통해 ‘사소한’의 부정적 함의를 낮춘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 표 7에서 보다시피 감성 코퍼스로 분석한 감성지수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 8. 사례 7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하찮/VA;은/ETM → KNU 인용	Negative	1	NEG: 1
TT2	나름/NNB	Positive	1	POS: 1
	사소/XR;하/XSA;ㄴ/ETM → 공기어 분석	Negative	0.5	NEG: 0.5

사례 8은 커뮤니티에서 카파시가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한 부분이다. 카파시가 통역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의 영어 구사 능력 때문이지만, 원문에서 설명하는 그의 영어 능력은 뛰어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애매한 기술로 말한다.

[사례 8 ST]

Mr. Kapasi was accustomed to foreign tourists; he was assigned to them regularly because he could speak English.

여기서 ‘could’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언어 재량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정도의 능력으로 커뮤니티 통역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지은 2015: 9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ST는 비전문적으로 여겨지는 분야의 통역에 전문성이 중시되지 않았던 점을 픽션으로 재현하고 있다. ST는 특정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에 가까운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성 지수 또한 완전한 중립성(1.0)을 보인다. 반면 번역본은 원문과 상당히 다른 함의의 표현을 보인다.

[사례 8의 TT]

[TT1] 그는 영어를 말할 줄 알기 때문에 이 가족의 관광을 맡게 되었다(p. 84).

[TT2] 카파시 씨는 외국인 관광객에 익숙했다.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외국인을 자주 배정받았다(p. 80).

TT1과 TT2는 모두 커뮤니티 통역사의 언어 능력에 전문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TT1에 긍정성이 검출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표 9처럼 각 번역본의 감성지수가 미미하여 분석에 유효한 수치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이다.

표 9. 사례 8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말/NNG;하/XSV;ㄹ/ETM	Negative	1	POS: 1
	주/VX;ㄹ/ETM	Negative	0.5	
	알/VV;기/ETN	Positive	1	NEG: 1.5
	때문/NNB;에/JKB	Negative	0.4	
TT2	하/VV;ㄹ/ETM	None	0.3	NEG: 0.5
	주/VX;ㄹ/ETM	Negative	0.5	
	알/VV	Postivie	0.4	
	아서/EC	Negative	0.4	

한쪽 극성에 미치지 못하는 어휘가 차지하는 지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휘의 감성지수가 더욱 유효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또한 극성에 미치지 못하는 어휘가 많은 경우, 중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립적 어휘(none)가 휘발되는 경우 다른 어휘가 차지하는 감성지수가 높게 측정되어 발생하는 감성코퍼스의 한계로 볼 수 있다.

4.3. 통역 의뢰인이 기대하는 통역사의 역할

본 항목은 통역 의뢰인이 기대하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커뮤니티 통역은 통역 의뢰인과 언어적, 문화적 이해의 조정이 필수적(김순미 2018: 15-16)이지만 실제 커뮤니티 통역 현장에서는 통역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다(이향 2015: 237). 다음의 사례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부분의 담화 중 일부이다.

[사례 9-10 ST]

“*I was hoping you could help me feel better*(사례9)…*say the right thing*(사례10)(p. 65).”

본 사례는 통역 의뢰인인 다스 부인이 카파시가 질병 통역사로도 일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벌어진 상황이다. 커뮤니티 통역사는 의뢰인에게 매우 다양한 역할을 요청받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문화, 계층, 지위의 격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한다(이지은 2015: 99). 사례 9는 이런 실제 현장의 모습과 그의 소회를 다스 부인과 주인공 카파시를 통해 재현한다. 다스 부인은 질병 통역사의 역할이 자신의 심적 갈등을 해소해 줄 만한 말(say the right thing)을 해주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help me feel better)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사례 9의 감성지수는 긍정성 0.583으로 검출되었고 사례 10은 중립1.0의 결과를 보였다.

[사례 9-10 TT]

TT1) “카파시 씨라면 제 마음을 풀어주실(사례9) 걸로 생각했어요. 속 시원한(사례10) 말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p. 40).”

TT2) “당신이 적절한 말로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 거예요.(p. 110).”

TT1의 경우 의뢰인은 커뮤니티 통역사가 “속 시원한 말”로 자신의 고통에 호응하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길 바라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이에 비해 TT2의 “적절한 말”은 의뢰인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답을 요구하며 통역사에게 중재적 역할을 요청한다. 이처럼 각 번역본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은 더욱더 다양하게 확장되어 있다. 다만 감성지수를 견주어 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현실처럼 각 번역문은 원문과 비슷한 방향의 감성을 보이지만 그의 수치는 원문보다 어떤 모든 방향에서 높은 결과를 보인다.

표 10. 사례 9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마음/NNG;을/JKO	Positive	0.5	POS: 1.5 NEG: 1
	풀어/VV;어/EC;주/VX	Positive	1	
	생각/NNG;하/XSV;았/EP	Negative	1	
TT2	마음/NNG;을/JKO	Positive	0.5	POS: 2.5 NEG: 0.5
	한결같이/MAG	Positive	1	
	가볍/VA;게/EC → KNU 인용	Negative	0.5	
	바라/VV	Positive	1	

표 11. 사례 10의 번역문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속/NNG	Negative	0.4	POS: 1
	시원/XR;하/XSA;ㄴ/ETM → KNU 인용	Positive	1	
TT2	적절/XR;하/XSA/ㄴ/ETM	Positive	1	POS: 1

사례 11은 다스 부인이 질병 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다스 부인은 통역사의 일을 과대하게 확장하고 원래의 역할 이상으로 포장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커뮤니티 통역사에게 기대하는 임무와 역할, 필요, 기대 등은 대중 인식의 부족으로 통역 서비스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데(곽중철 2010: 14) 본 사례는 이 같은 현실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감성지수는 중립성(1.0)을 보인다.

[사례 11 ST]

“in a way, more dependent on you than the doctor. ... It's a big responsibility(p. 53).”

TT1은 ST의 “totally”를 삭제하여 환자들의 카파시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하고 그로 인해 커뮤니티 통역사의 중요성 또한 감소된 번역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TT2는 원문의 표현과 상응하는 번역으로 다스 부인이 오해하는 질병 통역사의 역할과 책임이 원문과 같은 층위로 표현되었다.

[사례 11 TT]

[TT1]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도 당신에게 더 의지하는 거로군요... 그러니 정말 책임이 큰 거지요(p. 95).”

[TT2] “어느 면에서는 의사보다 더 의지하는군요. ... 책임이 막중한 일이에요.”

TT1의 ‘책임’은 모두 부정적 감성을 드러내는 어휘이지만 ‘정말’의 형태소로 인해 긍정성이 도출되었으며, TT2는 형태소 ‘막중한’으로 인해 중립의 감성지수가 도출되었다. 이를 보았을 때 부사의 선택이 감성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례 11은 앞선 사례의 경향과 달리 TT1에 긍정의 지수가 더 높게 검출되었다.

표 12. 사례 11 번역문의 감성분석

TT	형태소 분석	Max Value	Max Prop.	SUM
TT1	정말/MAG	Positive	0.5	POS: 0.5
	책임/NNG;이/JKS	Negative	1	
	크/VA;ㄴ/ETM	Negative	0.5	NEG: 1.5
TT2	책임/NNG;이/JKS	Negative	1	NEG: 1
	막중/XR;하/XSA	Neutral	0.5	Neu: 0.5

4.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원문과 번역문의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를 픽션적 전환 관점으로 고찰하고 또한 감성 분석에 따른 수치를 비교 및 대조하였다. 이를 정리한 시각 자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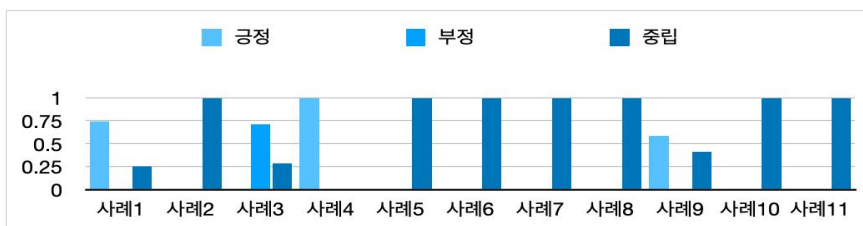


그림 6. 원문(ST)의 감성분석 수치 결과 그래프

ST의 감성지수 그래프 중 가장 극성이 높은 막대는 중립이다. 원문의 사례는 대부분 중립성이 높으며 긍정이나 부정 등 한쪽 극성으로 감성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ST에서 표상된 커뮤니티의 통역사의 사회적 인식이 중립적이고 모호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ST 사회에서 커뮤니티 통역사는 의료, 관광 등 사회의 필수적 영역을 담당하는 측면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긍정적이기보다는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통역사 자신과 커뮤니티 내부, 통역 의뢰인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ST는 이러한 점을 픽션적 전환의 양태로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 원문이 출간되던 1999년은 급격한 세계화와 그로 인한 언어와 문화 이동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반면, 지역사회 기능에는 필수적 인력이었다(강지혜 2013: 8; Hutton 20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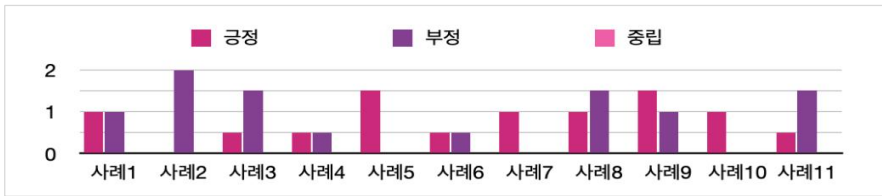


그림 7. 번역본 1(TT1)의 감성분석 결과

반면 TT1에서 표상된 통역사의 인식은 원문보다 부정적 표현이 강화된 점이 유효적이다. 이는 그림 7의 감성지수 그래프에서도 뒷받침된다. 비록 4개의 사례는 부정형이 강하고, 3개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수치가 같지만, 막대의 길이와 분포도를 보았을 때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래프에서 중립형의 지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역시 원문과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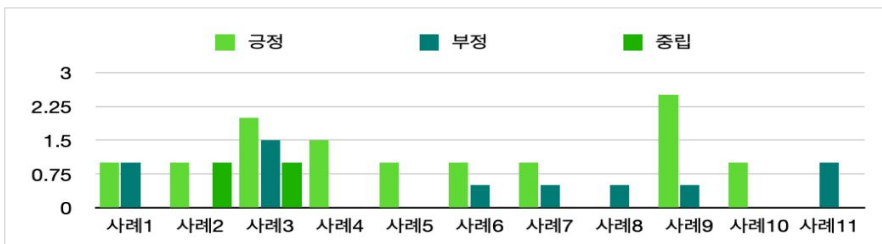


그림 8. 번역본2(TT2)의 감성분석 결과

한편 TT2의 경우 긍정형의 막대가 명시적이고 부정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검출되었다. TT1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 결과는 TT2에서 표상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양상이 이전 번역본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2와 3에서 중립성이 존재하는 것 역시 TT1에 비해 원문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면, 원문에서 표상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인식은 중립적 양상이 두드러졌지만 두 개의 번역본은 긍정 혹은 부정의 양상이 더 명

시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각 번역본에 재현된 커뮤니티 통역사는 부정(TT1)과 긍정(TT2)으로 대립한다. 동일한 원문에 대한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번역본 간 사회문화적 배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위의 번역문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TT1이 번역되던 시기의 한국에서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개념은 생소한 것이었다. 반면 TT2가 제작된 2013년에는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통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던 시점이다(강지혜 2013: 8). 지역사회 통역에 대한 연구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법 통역 및 의료통역 등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양상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었다(이지은 외 3명 2014: 179). 이러한 점들을 견주어 보았을 때 도착 문화권의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라는 맥락의 변화로 인한 번역본 간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각 번역본이 제작된 시기를 보았을 때 원문과 저자의 사회적 위치에 변화를 재고해 볼 수 있다. TT1이 출간되던 때에 원문은 저자의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TT2가 발행된 시점의 저자의 위치와 명성은 사뭇 다른 때였다. TT1이 발행된 1999년 당시 저자는 신예작가에 불과하였으며 원문은 신예작가의 첫 작품이었다. 이후 2013년에 TT2가 출간된 때에 저자는 원문을 통해 풀리처상과 펜/헤밍웨이상을 수상하고 『Interpreter of Maladies』는 북미의 대표 언론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의 문학적 명성의 위치가 크게 변한 이후의 번역본이다. 이렇듯 각 번역본이 제작되던 시기의 맥락과 환경의 변화는 각 번역본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셋째, 원문에서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사회적 위치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번역문은 감성의 극성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드러난 변화가 존재한다. 이는 문학번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명시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번역학에서 명시화의 논의는 대체로 문화적 간극을 좁히기 위한 번역 전략의 일종으로 일컬어지지만(김순영 2012)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이는 명시화 현상은 단어 차원의 감성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 언어의 어휘적 감정의 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단편소설에서 사례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사례가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분석 사례의 양이 다소 적게 제시되어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한 감성사전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사례 탐색 시 감성분석이 불가능

한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 사례에서 제외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곧 어휘의 단위에 집중한 분석이기 때문에, 번역에 수반되는 맥락의 영향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컴퓨터 언어학의 영역인 감성분석을 번역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접목하여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텍스트 분석 결과에 감성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를 제공하는 실증적 연구의 시도이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대조하여 픽션적 전환 관점의 논의를 진행한 점에서 그간 번역학 내 부족했던 픽션적 전환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을 보인다는 점에 그 의의를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중철. (2010). 「2009년 한국 제 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효필. (2013). KOSAC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한국어 감정 및 의견 분석 코퍼스.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영신. (2017). 「픽션에 표상된 번역과 번역가에 관한 연구: 픽션적 전환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5(3): 83-97.
- 김영신. (2018a). 「픽션속에 나타난 문화번역과 법정통역 연구: 수키 김의 The Interpreter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1): 229-244.
- 김영신. (2018b). 「해방기 한국 픽션에 나타난 언어접촉과 통역사 정체성 연구」. 『통역과 번역』 20(2): 53-71.
- 김순영. (2012). 「한영 문학 번역에서 문맥과 문화적 암시정보 (cultural subtext)의 처리」. 『통역과 번역』 14(1): 1-19.
- 남길입·조은경. (2017). 『한국어텍스트 감성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박상민·나철원·최민성·이다희·온병원. (2018). 「Bi-LSTM 기반의 한국어 감성사전 구축 방안」. 『지능정보연구』 24(4): 219-240.
- 신효필·김문형·박수지. (2016). 「한국어 감성분석 코퍼스를 활용한 양상정보 기반의 감성분석 연구」. 『언어학』 74: 93-114.
- 이승재. (2010). 「관공통역사와 중재적 역할: 고궁가이드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2): 123-148.
- 이지은·장애리·최문선·허지은. (2014). 「커뮤니티 통역 교육 사례 연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3): 155-180.
- 이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 장세은·이정은·박호민·송원문·정해룡·이수상·김재훈. (2019). 「대화코퍼스를 통한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과 주요 남녀 등장인물 간의 감성분석」. 『언어과학』 26(1): 115-147.
- 최창식·임영호. (2021). 「대통령 관련 보도의 감성 분석과 정파성의 지형: 신문별 감성지수의 차이, 일관성, 대통령 지도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1): 35-70.
- 홍유림. (2020). 「셰익스피어 Othello 등장인물 대사에 나타난 감성분석」. 『영어영문학』 25(3): 163-185.
- Bardeleben, R. von. (1997). The translator as mediator and metaphor. Joyce Carol Oates' *Détente*, Eva Hoffman's *Lost in Translation* and Ward Just's *The Translator*. In Drescher, H. W. (ed.), *Transfer*. Frankfurt: Lang, 325-245.
- Bing, L., Hu, M. and Cheng, J. (2005). Opinion observer: analyzing and comparing opinions on the web.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Proceedings, 342-351.
- Bing, L. (2012).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nthesis lec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5(1): 1-167.
- Delabastita, D. and Grutman, R. (2005).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multilingualism and translatio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4.
- Hutto, C. and Gilbert, E. (2014). VADER : A parsimonious rulebased model for sentiment analysis of

- social media text.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Proceedings, 8(1): 216-225.
- Hutton, M. A. (2020). Figuring the Guide in Jhumpa Lahiri's 'Interpreter of Maladies', RK Narayan's The Guide and EM Forster's A Passage to India. *Modern Languages Open* 1: 11-14.
- Kaindl, K. and Spitzl, K. (2014). Going fict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literature and film: An introduction. In Kaindl, K. and K. Spitzl (eds.), *Transfi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26.
- Kaur, T. (2004). Cultural Dilemmas and Displacements of Immigrants in Jhumpa Lahiri's The Namesake. In Mohit, K. R. & K. Rama (eds.), *Studies in Women Writers in English*. India: Atlantic, 266-277
- Nalisnick, E. T. and Baird, H. S. (2013a). Extracting Sentiment Networks from Shakespeare's Plays. Document Analysis and Recognition (ICDAR).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Proceedings, 758-762.
- Nalisnick, E. T. and Baird, H. S. (2013b). Character-to-Character Sentiment Analysis in Shakespeare's Plays. The 51s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roceedings, 479-483.
- Stiller, J., Nettle, D. and Dunbar, R. I. (2003). The small world of Shakespeare's plays. *Human Nature* 14(4): 397-408.

<분석텍스트>

Lahiri, J. (1999). *Interpreter of maladies*.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쥘파 라히리. (2000). 『축복받은 집』. 이종인 역. 서울: 동아일보사.

쥘파 라히리. (2013). 『축복받은 집』. 서창렬 역. 서울: 마음산책.

This paper was received on 15 April 2022; revised on 10 June 2022; and accepted on 20 June 2022.

Author's email address

cobain1823@gmail.com

About the author

Yunju Jee (first author) is a doctoral student at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ture translation and feminist translation.